

## 한글 성경 시편 5편의 번역 변화 연구

### -『시편촬요』(1898)부터 『개역개정판』(2005)까지-

이환진\*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시편촬요』(1898)부터 최근의 『개역개정판 4판』(2005)까지 시편 5편을 중심으로 『개역』 전통의 시편이 어떻게 번역되고 개정되어 왔는지 그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에 한국인 학자들만이 번역한 『공동번역』(1977)이나 『새번역』(2004)은 논하지 않기로 한다.

알렉산더 피터스(Alexander Pieters, 皮得) 목사의 『시편촬요』는 처음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시편 단행본으로, 시편 가운데에서 62편을 뽑아 번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의 시편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특히 ‘영혼’이라는 말이 그렇다.<sup>1)</sup>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후에 나온 시편 번역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시편 5편만을 분석하려고 한다. 시편 전체가 너무 방대한 책이기 때문이다. 번역문 분석에서 먼저 『시편촬요』(1898)를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구역』(1906, 1908, 1911)과 그 사이에 나온 『게일-이원모역』(1925) 그리고 『개역』(1930, 1936, 1938) 또한 해방 이후에 나온 『개역한글판』(1956, 1958, 1961)과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1964)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2005)을 비교하고자 한다.<sup>2)</sup>

\* 미국 New York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음.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peninim@hotmail.com.

1) 김남구는 일어성서 『메이지역』이 한·중·일 성경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영혼’(靈魂)이라는 말을 썼다고 말하고 있다. 김남구, “한문성경의 관계에서 본 일본어 성서 『메이지역』(1887)과 한글성서 -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6), 60-61. 그런데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에 ‘영혼’이라는 말이 이미 등장한다(천주실의 56, 124, 125 등). 따라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 말이 한·중·일 성경 속에 정착되었는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논문의 분량 때문에 비교 본문은 부록으로 따로 제시한다.

## 2. 우리말 시편의 편집 방식

우선 장수를 표기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보기로 한다. 『시편촬요』는 “데오편”으로, 『구역』(1906, 1908, 1911)은 단순히 “五”로, 『개역』의 경우 1930년 판은 “데五장”으로 앞에 “데”(제) 자를 넣어 표기한다. 그러다가 1938년 판에 가서는 다시 『구역』과 같이 “五”로 표기한다. 따라서 단순히 바뀌어가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에 나온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5”로 표기한다. 그러나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1964)의 경우 할 수 있는 한 한자로 표기하는 원칙에 따라 “五”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절수를 표기하는 방식도 특이하다. 먼저 표제어의 경우 1930년에 나온 『개역』부터 약간씩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모두 꺾쇠괄호([ ]) 속에 집어넣어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방식이 없었다. 지금도 이 방식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숫자는 처음 『시편촬요』부터 “一, 二, 三”과 같이 한자로 표기해 오고 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나온 『개역한글판』부터 “1, 2, 3”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수를 표기하는 방식과 같다. 물론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1964)의 경우는 한자로 표기한다.

표기 방식 가운데 특이한 것은 『1930 개역』이다. 이 판본은 마침표를 일일이 붙였다. 그것도 “。”로 붙인 것이 특이하다. 아직까지도 『개역개정판』이 마침표를 붙이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매우 획기적인 방식이다. 이 판본은 표기 방식뿐만 아니라 번역에서도 하느님을 “당신”이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 개정 책임을 맡고 있던 베어드(W. M. Baird) 선교사나 당시 함께 일했던 한국인 번역자들의 한국어 이해를 반영하는 번역이라고 생각한다.<sup>3)</sup>

고유명사의 경우 모든 성경이 밑줄을 그어 표기한다. 『개역』의 이러한 전통은 물론 『시편촬요』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근에 나온 『개역개정판』에서 굵은 고딕체로 바꾸었는데, 이는 “한글맞춤법”의 외래어표기법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띄어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시편촬요』(1898)부터 띄어쓰기가 사용된다. 독자들을 위한 배려이다. 이러한 전통은 1897년에 처음 나온 한글 주간지 『조선 (대한) 크리스도인 회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세기 말 당시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과 조선 그리스도인들의 독자 친화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게일-이원모역』(1925)의 경우 띄어쓰기가 되

3) 대한성서공회, “전시대 12-52 『성경전서(17권 개역)』” (서울 정동제일교회: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2015. 11. 24.), 34 참조.

어 있지 않다. ‘짧게 줄인 풀이역’이라고 부를 정도로 간결한 번역이 특징<sup>4)</sup>인 이 성경은 『개역』의 번역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역본이다. 본문 인용에서는 읽기 편하도록 오늘날 띄어쓰기에 맞추어 인용하기도 한다.

### 3. 시편 5편 본문 분석

#### 3.1. 시편 5편의 표제어

우선 고유명사 ‘다윗’은 공인역으로는 1906년에 처음 나온 『구역』 시편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1882)와 『시편촬요』(1898)가 ‘다윗’으로 표기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1897)가 ‘싸빗’으로 음역한 것은 이러한 유동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sup>5)</sup> 물론 1893년의 존스 선교사가 번역한 『구약공부』(하)는 한문성경 『대표본』을 따라 ‘대벽’(大關)이라고 읽는다. 따라서 1906년 시편이 나올 때에는 1900년의 신약에 영향을 받아 이미 ‘다윗’으로 굳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 변천 과정은 이렇다.

다윗 (개역) ⇨ 다윗 (시편촬요) ⇨ 싸빗 (조선크리스도인 회보) ⇨ 대벽 (구약공부) ⇨ 다윗 (예수성교 누가복음)

‘다윗의 시’라는 표현은 사실 『시편촬요』의 ‘다윗이 지은 시’보다 모호한 표현이다. 히브리어 ‘라메드’(ל)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하게 옮겨도 상관없을 것이다. 이러한 읽기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도 마찬가지이다. 가톨릭의 『성경』(2005)은 아예 ‘시편, 다윗’이라고 단순화시켜 읽기도 한다. 따라서 한글 성경에서 시편 표제어의 히브리어 ‘라메드’를 ‘-의’로 읽는 전통은 『구역』에서 시작하여 『개역』을 거쳐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회의 공인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영장’(伶長)이라는 용어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려운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성가대의 지휘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편촬요』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모호한 히브리어 ‘므나체아흐’(מְנַצֵּחַ)를 옮긴 것인데 한문성경 『대표본』(1854)에서 시작하여 일본어 『메이지역』(1887)까지 한·중·일 성경이 모두 공유하고 있

4) 민영진, 『국역 성서 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150.

5) 이환진, “존스(조원시)의 『구약공부』(1893) 룻기 번역 분석”, 『신학과 세계』 67 (2010), 14.

는 용어이다. 한글 『개역』의 경우 이 용어는 1964년에 나온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까지 사용되다가 『개역개정판』에 와서야 ‘인도자’로 바뀐다.

‘영장을 식이어’(시편촬요)와 ‘영장을 식히어’(1906 구역, 1908 구역, 1925 게일-이원모역)는 ‘영장을 시켜’라고 요즘 표기법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라메드’를 이렇게 ‘시키다’라는 사건어로 읽은 것은 매우 뜻밖이다. 어디서 이 읽기가 왔을까? 한문성경 『대표본』이 ‘영장을 시켜 통소를 불게 한다’는 뜻의 ‘使伶長吹簫’(사영장취소)로 읽은 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 표현이다. 여기서 ‘시킬 사(使)’자를 반영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곧 『시편촬요』도 알렉산더 피터스가 히브리어에서 번역했다고 하지만 한문성경을 참조한 흔적이다.<sup>6)</sup> 그런데 1906년 『구역』부터 1925년의 『게일-이원모역』까지 이 전통은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대표본』의 영향은 ‘통소’(洞簫)라는 번역어까지 포함한다. 물론 『대표본』을 위시한 여러 한문성경이 그냥 ‘소’(簫)라고 했지만, 이 말 앞에 다만 ‘통’(洞)이라는 말만 붙인 것이 ‘통소’(洞簫)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악’(管樂)이라는 말 또한 재미있는 번역어이다. 히브리어 ‘하-네힐로트’(הַנְחִילוֹת)를 옮긴 것인데, 사실 이 용어 또한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용어로 그 뜻을 잘 알 수 없다. 영어성경 KJV나 ASV가 이 용어를 그냥 음역한 반면 19세기의 여러 한문성경은 모두 ‘簫’(소)로 읽었는데 1930년 『개역』이 ‘관악’(管樂)으로 읽었다. 어디서 비롯된 용어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용어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혹시 중문성경 『화합본』의 ‘吹的樂器’(취적악기)를 참조한 것은 아닐까? 아무튼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이 이후의 번역에 미친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에 맞추다’라는 사건어로 1906년 『구역』이 전치사 ‘엘’(אֵל)을 읽은 것은 매우 훌륭한 번역이다. 그래서 ‘통소에 맞출’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엘 하-네힐로트’(אֵל הַנְחִילוֹת)를 읽은 것은 100여 년 전 레널즈(W. D. Reynolds)의 『구역』 번역 팀이 거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문성경 『대표본』(‘和之’)을 참조했을 수도 있다. ‘화’(和) 자에는 ‘소리에 응한다’는<sup>7)</sup>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시편촬요』의 ‘통소로 하는 노래’라는 어색한 표현보다 더 자연스러운 우리말이다. 여기서 다른 점은 1938년 『개역』부터 ‘통소에 맞출’이 아니라 ‘통소에 맞춘’이라는 과거형으

6)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시편촬요』 번역 평가”, 김이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편,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김이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서울: 한들출판사, 2006), 416-419;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에 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28.

7) 民衆書林 編輯局 編, 『漢韓大字典』, 全面改訂・增補版, (서울: 民衆書林, 1997), 391. 이 사전은 『易經』(‘鳴鶴在陰, 其子和之’)을 인용하는데 그 표현이 『대표본』의 ‘和之’(화지)와 똑같다.

로 그 뜻이 바뀌었다는 점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읽기가 이어진 것을 보면 1938년 『개역』의 영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래’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미즈모르’(מִזְמוֹר)를 옮긴 것이다. 한글 성서는 1930년 『구역』이 ‘시’(詩)라고 한 것만 빼고 모두 ‘노래’라고 이 용어를 읽었다. 아마도 1902년에 나온 한문성경 『시주교역』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주교역』은 이 표제어를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 영장을 시켜 통소를 불게 함 그리고 노래’[此大律所作之詩使伶長吹簫而歌]라고 읽기 때문이다. 사실 이 표제어에는 ‘시’나 ‘노래’로 읽을 수 있는 용어가 ‘미즈모르’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시’와 ‘노래’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것은 한문성경 가운데에서도 『시주교역』(1902)과 『북경관화역구약』(1875) 밖에 없다. 『시편촬요』는 이 읽기를 따른 듯하며 이후에 나온 우리말 성경은 『시편촬요』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다. 『게일-이원모역』(1925)과 『개역』(1930)이 ‘미즈모르’(מִזְמוֹר)를 ‘시’(詩)로만 읽었다. 『구역』 개정작업을 하면서 원문에 충실했던 『개역』(1930)을 포기하고 『시편촬요』로 돌아간 것은 아무래도 책임자가 알렉산더 피티스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한다.<sup>8)</sup>

### 3.2. 시편 5:1

우선 ‘여호와’라는 용어는 『시편촬요』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이 용어는 『구약공부』(1893)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용어이다. 후에 나온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1897)가 ‘야화화’나 ‘여호와’라는 말을 병기하여 사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 히브리어 본문 순서에 따라 ‘나의 말에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소서’라고 읽어도 될 것을 『시편촬요』가 부름말 ‘여호와’를 맨 앞에 끄집어내어 읽어서 이 전통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耶和華’(야화화)를 문장 맨 앞에 위치시킨 한문성경 『대표본』의 영향이 아닐까 짐작한다. 이 어순은 『구역』(1906)과 『개역』(1938)을 거쳐 지금껏 이어진다.

‘내 말씀’(내 말씀)은 히브리어 ‘아마라이’(אמרי)를 옮긴 것으로 또한 『시편촬요』에서 시작하여 『게일-이원모역』(1925)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부터 ‘나의 말’로 바뀌어 지금껏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도 베어드 팀의 『개역』에 대한 개정 공헌도를 확인할 수 있다.<sup>9)</sup> ‘말

8) 전무용, 조지윤, “한글 성경의 번역”,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경 전시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54.

9) 유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148-152 참조.

숨’(말씀)과 ‘말’의 차이는 존대어와 비속어의 차이이다. 물론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한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하듯이 『시편촬요』나 그 영향을 받은 『구역』이나 『계일·이원모역』처럼 ‘말씀’(말씀)이라고 읽는 것이 우리말 존대법에 더 어울릴 것이다. 따라서 ‘(나의) 말’로 읽은 것은 우리말 관례상 오히려 후퇴가 아닐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나의’라는 표현이다. 우리말 성경은 『시편촬요』부터 시작하여 『개역개정판』에 이르기까지 공인번역에서 100여 년 동안 한 번도 ‘저의’나 ‘제’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sup>10)</sup> 따라서 ‘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평칭의 ‘나’와 높임의 ‘말씀’이 함께 사용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저의 말씀’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어드 팀은 1930년에 ‘나의 말’로 통일시키지 않았을까?

다음으로 『시편촬요』의 ‘내 생각하는 거술’(내 생각하는 것을)은 히브리어 ‘하기기’(גִּיגִּי)를 옮긴 것인데 여기서 일인칭 접미어를 빼 ‘하기그’(גִּיגִּי)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옮긴 것은 히브리어 동사 ‘하가’(הָגָה)를 염두에 둔 번역으로 보인다. 영어성경 KJV와 ASV가 ‘meditation’(묵상)으로 읽는 것도 참조할 만하다. 요즘은 ‘탄식’이나 ‘한숨’으로 읽는다.<sup>11)</sup> 1906년 『구역』 이래로 한글 성서 시편은 ‘심사’(心思)로 읽다가 최근에 와서야 ‘심정’(개역개정)으로 바꾸어 읽었다. 시편 39:3(히브리어 4절)에 이 단어가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구역』(1938)은 이 말을 ‘묵상’(묵상, 默想)으로 읽었다. 한문성경 『대표본』과 『북경관화역 구약』(1875) 그리고 『시주교역』(1902)의 용어이다(『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思念’ 참조). 아니면 ‘while I was musing’으로 읽는 KJV와 ASV를 반영한 듯하다.

‘심사’(心思)라는 말은 물론 흔한 한자말이지만 아무래도 『구역』의 고유어인 듯하다. 여기서 한문성경은 각각 ‘歎歎’(대표본), ‘思’(브리지만-컬벳슨역), ‘歎息’(북경관화역 구약, 시주교역)으로 읽는다. 물론 『브리지만-컬벳슨역』이 ‘思’로 읽었기에 관련성과 영향이 있는 듯하나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특이하게도 중문성경 『화합본』(1919)이 ‘心思’(심사)로 읽는데 『구역』(1906)이 20여년 먼저 나왔기 때문에 『화합본』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통촉(洞燭)하다’는 말은 ‘아랫사람의 사정을 깊이 헤아린다’는 뜻이다.<sup>12)</sup> 1906년 『구역』부터 시작하여 1961년 『개역한글판』까지 사용한 이 용어는 히브리어 ‘비나’(בִּינָה)를 옮긴 말이다. ‘속을 꿰뚫어 보다’나

10) 『새번역』은 ‘저’나 ‘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1) HALOT, 238.

12) 『漢韓大字典』, 1143.

‘깊이 헤아리다’라는 뜻을 지닌 이 용어를 레널즈의 『구역』 번역팀은 잘 읽었다. 그런데 피터스의 『시편촬요』가 이 용어를 ‘하량(下諒)하다’로 읽었다. 이 용어 역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알아준다’는 뜻이다.<sup>13)</sup> 따라서 초기 한글 성서의 두 용어는 히브리어의 대응어로서 매우 적절한 번역어라고 생각한다. 다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개역개정판』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쉬운 표현으로 읽었으나 ‘심정’이라는 말이 원문의 뜻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헤아려 달라’는 말은 훌륭한 번역이지만 ‘심정’은 원문의 본디 의도와는 다른 듯하다. 이러한 사정은 『구역』과 『개역』의 ‘심사’(心思)도 마찬가지이다.<sup>14)</sup> 히브리어 ‘하기그’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마음’(구역, 개역)이나 ‘마음의 상태’(개역개정)를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3.3. 시편 5:2

앞 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의 임금, 나의 하느님!’이라는 부름말을 앞으로 끄집어내어 읽는다. 『시편촬요』에서 시작되는 이 읽기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시편촬요』는 ‘나의 왕 그리고 나의 하느님’(מלכי ואלהי)을 문자적으로 읽어 ‘내 임금과 내 하느님’이라고 옮겼다. 뒤이어 나오는 한글 성경은 ‘나의 왕’(מלכי)과 ‘나의 하느님’(אלהי) 사이에 연결사 바브(ו)가 있음에도 별개의 부름말로 읽었다. 『구역』(1906)부터 시작된 전통이다. 이 전통은 지금껏 이어진다. 다만 『계일-이원모역』만이 ‘나의 王이신 하느님’이라고 히브리어 연결사 ‘바브’를 동격으로 읽고 부름말로 읽지 않았다. 번역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멜렉’(מלך)의 번역어로도 ‘임금’(시편촬요)과 ‘님군’(구역)과 ‘왕’(계일-이원모역, 개역)으로 다르다. 『시편촬요』가 ‘님금’(임금)이라는 쉬운 토박이말로 번역한 반면 『구역』(‘님군’)에서는 한문성경 『대표본』(‘大君’)의 영향을 엿볼 수 있으며 『개역』은 『계일-이원모역』의 영향을 드러낸다.<sup>15)</sup>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브리지만-컬벳슨역』과 웨레쉐브스키 주교의 두 한문성경(북경관화역 구약, 시주교역) 그리고 『계일-이원모역』의 ‘王’(왕)이 지금껏 사용되고 있

13) Ibid., 87.

14) 중문성경 『화합본』(1919)도 여기서 ‘心思’(심사)라는 말을 사용한다.

15) 특이한 것은 언더우드가 1890년에 펴낸 『한영자전』에는 ‘님군’(구역)과 ‘님금’(시편촬요)을 같은 말(‘king’)로 풀이하면서 한자로는 ‘君主’(군주)로 설명한다. Horace Grant Underwood, 『韓英字典 한영즈던』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Student Edition (Yokohama; Shanghai; Hongkong; Singapore: Kelly & Walsh, Ltd., 1890), 95.

으나 전반적인 표현은 『구역』(1906)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구역』(1906)의 ‘내 님군이시오 내 하느님이여’라고 부름말 어미를 두 번 붙인 것은 『브리지만-컬벳슨역』(‘我王歟, 我神歟’)이나 『북경관화역 구약』(‘我王, 我主’)과 같은 번역이다. 하지만 중문성경 『화합본』(‘我的王我的上帝何’)이 『개역』(1930)의 ‘나의 왕 나의 하느님이여’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화합본』(1919)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느님’이라는 『시편촬요』의 번역어는 물론 『예수성교전서』의 ‘하나님’에서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잘 아는 대로 이 용어는 ‘하느님’(예수성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예수성교전서)을 거쳐 ‘하느님’(1906 구역)으로 이어지다가 ‘하나님’(1938 개역)으로 바뀌어 지금껏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공인역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콜 샤브이’(קול שובי)를 『시편촬요』는 히브리어 단수 일인칭 접미어 요드(י)를 생략하고 ‘외쳐 부르는 소리’로 읽는다. ‘도움을 구하여 울부짖는다’는 히브리어 ‘쉐바’(שׁוּבָה)의 뜻<sup>16)</sup>을 잘 반영한 좋은 번역이다. 히브리어 일인칭 단수 어미를 생략한 것은 앞에 ‘내가 기도하오니’라고 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운율상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듯하다. 『구역』(1906, 1908, 1912)은 모두 ‘내 불러 아뢰는 소리’ 곧 ‘내가 불러 아뢰는 소리’로 읽었다. 『개역』(1930, 1936, 1938)은 ‘내 부르지지는 소래’로 읽다가 1952년에 와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로 읽었다. 그러다가 『개역개정판』에 와서야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읽었다. ‘나의’가 ‘내가’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개역개정판』의 이 표현은 1930년 베어드 팀의 『개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역』(1906, 1908, 1912)이 특이한 점은 ‘대개 주의 기도흐옵느이다’에서 ‘대개’라는 표현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이 부분이 ‘키 엘레이카 에트팔랄’(כִּי־אֵלֶיךָ אֶתְפַּלֵּ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맨 앞에 나오는 ‘키’(כִּי)를 반영한 것이다. 이 히브리어 불변화사를 번역한 성경은 우리말 성경 가운데 『구역』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말 주기도문에도 여전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표현에 등장한다. ‘대개’는 언뜻 들으면 ‘그러므로’나 ‘따라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나 히브리어 불변화사 ‘키’는 사실 감탄사로 읽을 수 있다.<sup>17)</sup> 따라서 ‘아!’나 ‘그래요!’ 정도의 뉘앙스를 띤다. 그런데 『구역』은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읽은 듯하다. 쉘레셰브스키 주교가 번역한 두 한문성경(북경관화역 구약, 시주교역)과 중문성경

16) HALOT, 1448.

17) Thomas F. Best, ed., *Hearing and Speaking The Word, Selections from the Works of James Muilenburg* (Chino, CA: Scholars Press, 1984), 208-233.



『화합본』이 ‘因’(인)을 사용하여 이유를 나타낸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문 성경 『브리지만-컬벳슨역』이 여기서 ‘蓋’(개)로 읽었다. 물론 『대표본』과 같이 이유를 나타낸다.<sup>18)</sup> 그러나 반드시 이유만 나타내지는 않는다. 우리의 어감처럼 ‘그러므로’나 ‘따라서’라는 뜻도 이 말 속에는 들어있는 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선교사들이 펴낸 한영사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대개’라는 용어는 『브리지만-컬벳슨역』에서 비롯됐다고 보아도 별 상관이 없을 듯하다. 따라서 한자말이지만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개역개정판』의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는 1936년 『개역』부터 읽어온 표현이다. 그런데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과 그 표현이 거의 같다. 다만 ‘당신’(베어드 팀)을 ‘주’(피터스 팀)로 바꾼 것뿐이다. 베어드 팀의 번역이 특이한 점은 하느님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부른 점이다. 이 전통은 지금도 가톨릭교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동번역』(1977)과 『가톨릭성경』(2005)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다. 피터스 팀은 『개역』(1936)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을 모두 ‘주’로 바꾼 듯하다. 아마도 『시편촬요』에서 시작하여 『구역』(1906, 1908, 1912)에서 굳어진 전통을 따른 듯하다. 아니면 우리말 어법상 웃어른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여 바꾸었을 가능성도 크다. 사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공동번역』도 극도로 자제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sup>20)</sup>

### 3.4. 시편 5:3

본 절에서 ‘아침’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 핵심어인 듯하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모두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반영했다기보다는 일관성이 없이 번역했다. ‘여호와’라는 부름말이 여기서도 맨 앞에 나와 모두 그렇게 번역했다. 그러나 앞 절에서는 부름말이 중간에 나오에도 불구하고 맨 앞으로 끄집어내어 강조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콜’(קול)을 『시편촬요』는 ‘목소리’로 읽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후에 나온 한글 성경이 표기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을 모두 ‘소리’로 읽은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히브리어 ‘콜’(קול)은 ‘목소리’이기도 하고 ‘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편촬요』의 번역어는 목에서 나는 소리에 강조점을 두었고 『개일-이원모역』까지

18) 金元中, 『虛辭大辭典』(서울: 현암사, 2003), 55 참조.

19) James Scarth Gale, 『韓英字典』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Fukuin Printing Co., 1914), 5; Horace Grant Underwood, 『韓英字典 한영저언』, 141.

20) 민영진, 『국역 성서 연구』, 176.

포함하여 1906년 『구역』 이후의 한글 성경은 모두 그냥 일반적인 소리라고 이해한 듯하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하반절의 ‘기도’라는 번역어의 표기이다. 작은 글자로 표기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기 때문이다.<sup>21)</sup> 『1938 개역』은 앞 용례에 ‘원문에 가입한 작은 글자는 원문의 뜻을 더 밝힘임’이라고 했다. 본절은 “아침에 나는 펼칩니다. 님께.”(בקר אערך לך)라고 읽을 수 있다. 무엇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시편촬요』는 ‘원함을 베플고’(원함을 베풀고)라고 ‘원함’을 집어넣어 읽었고 『구역』(1906, 1908, 1911)은 ‘기도를 베플고’라고 하여 ‘기도’를 집어넣어 읽었다. 그리고 작은 글자로 처리했다. 그런데 『게일-이원모역』은 “내가 主를 向하야 브라리로다”라고 읽어 번역하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는 ‘펼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아라크’(ערך)를 『시편촬요』와 『구역』(1906, 1908, 1911)은 ‘베플다’(베풀다)로 읽었는데 『개역』(1930, 1936, 1938)은 ‘기도하고’라는 식으로 읽어 뭉뚱그렸다.

또 하나 마지막 동사 ‘차파’(צפה)는 ‘보다’나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sup>22)</sup>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부터 ‘브라리로다’(바라리로다)라고 읽었다. 이 번역어는 아무래도 『시편촬요』의 ‘바라겠습는다’(바라겠습나이다)에서 온 듯하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게일-이원모역』(‘브라리로다’)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구역』(1906, 1908, 191)은 ‘바라보겠는다’(바라보겠나이다)라고 읽었는데 표기법은 『시편촬요』와 비슷하지만 뜻은 ‘바라보다’라고 하여 다르다. 단지 ‘보’자를 넣고 있느냐의 차이이지만 번역어는 다른 번역어이다.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이 특이한 점은 앞 절에서도 언급한 대로 히브리어 2인칭 단수 어미를 ‘당신’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 용어는 해방 이전에 나온 성경 가운데 『개역』(1930)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 3.5. 시편 5:4

『구역』(1906, 1908, 1911)은 ‘대개’라는 말로 시작한다. 앞 절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불변화사 ‘키’(כי)를 옮긴 말로 한문성경 『브리지만-결벗슨역』(‘蓋’)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앞 절과 같이 이 번역어 또한 『게일-이원모역』부터 우리말 성경에서 사라진다.

히브리어 2인칭 단수 대명사 ‘아타’(אתה)를 우리말 성경은 모두 ‘주’(主)로 실명사화하여 읽었다. 1930년 베어드 팀의 『개역』만 ‘당신’이라고 읽었

21) Ibid., 68-80 참조.

22) HALOT, 1044.

다. 이런 면에서 베어드 팀의 번역은 우리말 성경 번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어 ‘엘’(אֱלֹהִים)을 옮긴 『개역』(1930, 1936, 1938)의 ‘신’(神)이라는 번역어 또한 특이하다. 『시편촬요』나 『구역』(1906, 1908, 1911)처럼 ‘하느님’이나 ‘하나님’으로 읽어도 될 것을 구태여 ‘신’으로 바꾼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개역』은 ‘엘로힘’을 문맥에 따라 ‘하나님’이나 ‘신’으로 읽기 때문이다. 사실 『개역』(1938)은 발람 신탁(민 24:4, 14)에서는 ‘엘’을 ‘하나님’으로 읽는다. 따라서 일관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구역』 번역팀은 영어성경 KJV나 ASV의 ‘a God’을 참조한 듯하나, 1930년 베어드 팀은 여기서 『구역』 전통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혹시 중문성경 『화합본』(1919)의 ‘神’(신)을 따른 경우일까? 아니면 한문성경 『브리지만-컬벗슨역』을 따른 결과일까? 잘 알 수 없다. 일어성서 『메이지역』(1887)도 ‘神’(신)으로 읽는다. 한문성경 『대표본』과 『북경관화역 구약』 그리고 『시주교역』 모두 여기서 ‘神’(신)이 아닌 ‘上帝’(상제)로 읽는다.

『개역개정판』의 ‘기뻐하는(신)’이라는 표현은<sup>23)</sup> 『시편촬요』에서 물려받은 표현이다. 존대법 표현이 달라 『시편촬요』와 『구역』(1906, 1908, 1911)이 ‘깃버흐시는 하느님이 아니시오’(시편촬요)와 ‘깃버흐시는 하느님이 아니시라’(구역)라고 ‘-시-’자를 두 번 사용한 반면 1938년 이후부터 『개역』은 지금껏 ‘깃버하는 신이 아니시니’라고 ‘-시-’자를 한 번만 사용한다. 이 전통은 물론 표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1930년 베어드 팀의 『개역』(‘깃버흐는 신이 아님이여’)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주요 용어는 ‘악’(惡)이다. 히브리어 ‘라’(רָע)의 번역어인데 ‘악’으로 읽을 수도 있고 1930년 베어드 팀의 『개역』의 난하주처럼 ‘악인’(惡人)으로 읽을 수도 있다. 영어성경 ASV의 흔적으로 보인다. 난하주에 ‘The evil man’이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역』 전통의 난하주는 대체 번역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sup>24)</sup> 여기 시편 5편에서 이 난하주는 베어드 팀의 『개역』에서 시작하여 지금껏 이어진다.

이어서 나오는 표현의 번역은 ‘함께 있다’(시편촬요)나 ‘함께 하다’(게일-이원모역)와 ‘함께 거(居)하다’(구역) 그리고 ‘함께 유(留)하다’(개역)로 나뉜다. 번역어 자체를 놓고 보면 『시편촬요』가 제일 쉽다. 그런데 이어지는 한글 공인역은 한자말을 섞어 사용한다. 『구역』(1906, 1908, 1911)의 ‘함께 거(居)하다’는 아무래도 한문성경 『대표본』이나 『북경관화역 구약』 그리고 『시주교역』 또는 중문성경 『화합본』의 ‘同居’(동거)의 영향인 듯하다.

23) 히브리어 동사 ‘하페츠’(יָפֵט)를 옮긴 말인데 같은 말을 『개역』(1938)이 시편 1:3에서는 ‘즐거워하다’라는 말로 옮기기도 한다.

24) 민영진, 『국역 성서 연구』, 34-37.

물론 『브리지만-꺄벗슨역』(‘皆居’)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개역』(1930, 1936, 1961, 2005)의 ‘함께 유(留)하다’는 독특하다.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역개정판』은 ‘함께 머물다’로 이 말을 쉽게 고쳐 읽는다. 하지만 ‘구르’(גור)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sup>25)</sup> ‘함께’라는 말이 덧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3.6. 시편 5:5

맨 앞에 나오는 ‘오만(傲慢)한 자(者)들’이라는 번역어는 히브리어 ‘홀람(חוללם)’을 옮긴 것인데 1906년 『구역』부터 시작한 번역어이다. 『시편촬요』는 ‘거만한 자들’이라고 읽었다. ‘오만’과 ‘거만’의 뉘앙스만 다를 뿐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촬요』가 ‘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는데 최근에 나온 『개역개정판』이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여 ‘들’이라는 복수 어미를 집어넣어 읽었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개역개정판』이 구태여 ‘들’을 집어넣어 읽을 필요는 없으나 의미가 별로 없는 복수 어미를 집어넣어 읽은 것은 이러한 우리말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개역개정판』의 ‘목전(目前)에’라는 말이 재미있다. 『시편촬요』나 『구역』(1906, 1908, 1911) 같은 초기 한글 성경은 ‘주의 눈앞에’(주의 눈앞에)라는 쉬운 말로 읽은 반면 1930년 베어드 팀의 『개역』부터 ‘목전’(目前)이라는 한자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표현이 어려워져가는 경향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이다. 한문성경 『브리지만-꺄벗슨역』(‘目前’)의 영향일까? 아니면 일어성서 『페이지역』(‘目前’)의 영향일까? 히브리어 ‘레-네게드 에이네이(카)’(לנגד עיניי)라는 표현을 옮긴 것이다. 한문성경 『시주교역』(‘主之前’)이나 『계일-이원모역』(‘주의 압헤’)처럼 그냥 ‘주 앞에’라고 읽어도 되지만 시각적 효과를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 ‘눈’[目]이라는 말을 직역하여 읽은 것이다.

물론 여기서 ‘카’(ק)라는 히브리어 2인칭 남성 단수 어미를 ‘주’(主)로 읽는 전통은 『시편촬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통이다. 다만 1930년 베어드 팀의 『개역』이 ‘당신’으로 시편에서 일관성 있게 읽은 것을 제외하고 하는 말이다.

‘서지 못한다’는 표현은 『시편촬요』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표현인데 영어 성경 KJV나 ASV의 ‘shall not stand’를 닮았다. 또는 『브리지만-꺄벗슨역』(‘不得立’)을 반영하는지도 모르겠다. ‘자리 잡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히

25) HALOT, 184 참조.

브리어 동사 ‘히트야체브’(הִתְיַצֵּב)를 이렇게 읽었다. 아무래도 두 영어성경이나 『브리지만-꺠벗슨역』의 영향으로 보인다. 『브리지만-꺠벗슨역』은 본문결정을 할 때 영어성경 KJV를 따랐기 때문이다.

『개역개정판』의 ‘모든 행악자’는 1930년 베어드 팀의 『개역』에서 시작된 용어이다. 『시편촬요』(‘죄악을짓는 자들’)는 한문성경 『브리지만-꺠벗슨역』(‘凡作惡者’)과 『시주교역』(‘凡作惡者’)처럼 읽었고 『구역』(1906, 1908, 1911)은 ‘악을 행하는 모든자’라고 읽었다. 한편 『대표본』은 ‘갓가지 악’이라는 뜻의 ‘품악’(品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구역』의 ‘악을 행하는 모든자’는 독특한 번역이다.

이 부분에서 『구역』과 『개역』이 ‘악인’(רשע)과 ‘악을 행하는 모든 자’(כָּל פְּעוּלֵי אוֹן)를 구분하여 읽은 것이 눈에 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점은 후대의 한글 성경이 모두 히브리어 ‘쿨’(כָּל)을 『개역개정판』처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와 같이 관형사로 읽은 것이다. 하지만 『시편촬요』만이 ‘쥬씩셔 죄악을짓는 자들을 모다 뒤워히시옵느이다’라고 ‘쿨’(כָּל)의 기능을 부사로 처리한 점은 『시편촬요』의 훌륭한 점이다. 사실 ‘쿨’은 명사이다. 이 명사를 부사로 읽은 것은 성서 히브리어에서 흔한 일이기에 성서 히브리어에 대한 깊은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촬요』이다.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말 어미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시편촬요』(‘뒤워히시옵느이다’)에서 시작하여 『1906 구역』(‘뒤워히시느이다’)과 『1930 개역』(‘뒤워하시도다’)을 거쳐 『1936 개역』(‘미워하시며’)과 『개역개정판』(‘미워하시며’)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말이다. 한글 성경 시편에 미치고 있는 『시편촬요』의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3.7. 시편 5:6

여기서는 1930년 베어드 팀의 『개역』(‘당신은 거짓 말 하는 자를 멸함시여’)만이 이 절을 독립절로 읽었다. 그러다보니 히브리어 동사 ‘테아베드’(תִּאבֵּד) 속의 주어를 ‘당신’으로 읽었다. 이 동사를 ‘멸하다’로 읽은 것은 『구역』(1906)에서 시작하여 『개역한글판』(1961)까지 이어지다가 『개역개정판』(2005)에 와서 ‘멸망시키다’로 바뀐다. 물론 『개역개정판』의 이 번역어는 개정팀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시편촬요』(‘장춧 멸망케히시고’)의 영향으로 읽을 수도 있다. 아무튼 이 번역어에서는 『구역』(1906)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개역개정판』의 ‘거짓말 하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른 한글 성경은 모두 단수로 읽었지만 『시편촬요』만이 ‘거짓 말하는 자들’이라고 ‘들’을 넣어 읽었기 때문이다.

『개역개정판』의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라는 표현은 구태

여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표현이다. 『시편촬요』(‘피를 흘니고 속이는 자들’)와 이 전통을 잇는 1906년 『구역』(‘피를 흘니고 속이는 자’)과 1930년 『개역』(‘피흘니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이 원문 그대로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기 때문이다. 물론 베어드 팀의 1930년 『구역』이 ‘피흘니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에서 ‘즐기고’라는 말을 더 첨가하여 읽은 것은 히브리어 ‘이쉬 다뎀’(אִישׁ דָּמַם)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읽은 듯하다. 대부분의 한문성경이 문자적으로 읽지 않은 반면 『브리지만-컬벳슨역』이 ‘流血詭譎者’(유혈궤흉자)로 문자적으로 읽은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1930년 『개역』의 ‘피 흘리기를 즐기는(자)’는 독특한 번역이다.

‘싫어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티에브’(תעב)를 옮긴 말이다. 이 말은 여기처럼 시편 119:163에서도 앞 절의 ‘싸네’(שנא)와 짝말로 등장한다. 단순히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질색한다’나 ‘혐오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말이다.<sup>26)</sup>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전통적으로 단순히 ‘싫어한다’(תעב)와 ‘미워한다’(שנא)로만 읽었다. 그래서 앞 절은 ‘미워하시며’로 끝나고 본 절은 ‘싫어하시나이다’로 끝난다. 물론 『시편촬요』(‘몹시 뉘워히시옵는다’)와 1906년 『구역』(‘극히 슬회여히시도다’)은 각각 ‘몹시’와 ‘극히’라는 말을 집어넣어 그 의미를 잘 살렸다. 이렇게 좋은 번역을 후대 성경이 잊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렇긴 해도 대구(對句)를 이루는 두 표현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읽은 점은 한글 성경의 뛰어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8. 시편 5:7

『개역개정판』의 ‘오직 나는’이라는 표현은 『시편촬요』(‘오직 나는’)에서 시작한다. 『게일-이원모역』과 1930년 『구역』만이 ‘오직’이라는 표현을 생략했을 뿐 모든 성경이 똑같이 읽어오고 있다. 히브리어 ‘바-아니’(בְּאִנִּי)가 문장 맨 앞에 오기에 강조하여 히브리어 연결사 ‘바브’(ו)를 ‘오직’이라는 말로 읽은 듯하다. 강조하는 것은 영어성경 KJV와 ASV의 ‘but as for me’를 답았다. 하지만 ‘오직’은 『브리지만-컬벳슨역』(‘惟我深蒙爾之厚恩’)이나<sup>27)</sup> 『북경관화역 구약』(‘惟我蒙大恩慈’) 또는 『시주교역』(‘惟我蒙主之大恩慈’)의 ‘유’(惟)를 따른 듯하다.

『개역개정판』의 ‘풍성한 사랑’은 이전 번역의 ‘풍성한 인자’를 바꾼 것이다. 곧 ‘인자’(仁慈)를 ‘사랑’으로 읽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으나 히브리어 ‘헤셰드’(חֶסֶד)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이나 ‘변치 않는 사랑’이다. ‘인자’(仁慈)는 ‘인자’(人子)와 소리가 똑같이 혼동될 소지가 있

26) Ibid., 1765-1766.

27) 『시편촬요』의 ‘두터운 은혜’는 『브리지만-컬벳슨역』(‘厚恩’)에서 온 듯하다.

지만 『개역개정판』의 ‘사랑’보다는 그 뜻을 더 응축적으로 표현한 번역어이다. 1936년 『개역』의 ‘풍성한 인자’는 1961년 『개역한글판』까지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당신 인자의 풍성함’)을 약간 바꾼 듯하다. 이렇게 바꾸어 읽는 데에는 혹시 일어성서 『메이지역』(‘豊かなる仁慈’)의 영향이 있지는 않았을까? 표현이 똑같기 때문이다. 물론 ‘인자’(仁慈)는 『북경관화역 구약』과 『시주교역』에도 나오는 말이다.

『구역』(1906, 1908, 1911)의 ‘(풍성한 인자를) 입다’라는 표현은 『시편촬요』의 ‘주의 두터운 은혜를 넘고’(주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에서 온 듯하다. 하지만 『대표본』(‘我蒙厚恩兮’)의 ‘蒙’(몽)을 옮긴 것이 아닐까? 이후의 한문성경도 여기서 모두 ‘입다’라는 뜻의 ‘몽’(蒙)으로 읽는다. 이 표현을 1936년 『개역』 이후로는 모두 ‘힘 입어’로 읽어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주를 경외함’이라는 『개역』 전통의 표현은 사실 ‘주를 두려워 함’이라는 『구역』 전통보다 어려운 말이다. ‘경외’(敬畏)라는 말은 『북경관화역 구약』(‘敬畏你’)에서 비롯되어<sup>28)</sup> 중문성경 『화합본』(‘在敬畏你的心’)도 공유하고 있는 용어이다.

‘주의 집’과 ‘주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각각 ‘베이트카’(ביתך)와 ‘헤이칼 코드쉐카’(היכל קודשך)를 옮긴 표현이다. 앞은 ‘집’이고 뒤는 ‘성전’으로 흔히 읽는 말이다. 이 짝말은 1906년 『구역』부터 시작하여 지금껏 읽어오고 있다. ‘들어가 … 경배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1906년 『구역』부터 시작하여 1961년 『개역한글판』까지 이어진다. ‘경배한다’는 표현은 ‘엎드린다’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히쉬타하베’(השתחוה)를 옮긴 것인데 『시편촬요』는 『대표본』의 용어(‘崇拜’)인 ‘숭비한다’로, 『개역개정판』은 ‘예배한다’는 말로 읽는다. 본 절에서는 이렇게 1906년 『구역』이 지금껏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배’라는 말이 지금 사용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개역개정판』이 ‘예배’라는 말로 굳이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개역개정판』의 ‘성전을 향하여’에서 ‘향하여’는 히브리어 ‘엘’(אל)을 읽은 것인데 이 표현은 『시편촬요』부터 시작된 표현이다. 방향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읽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 3.9. 시편 5:8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이 ‘여호와’라고 음역하면서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켰다. 그 다음 1961년 『개역한글판』의 ‘내 원수들을 인하

28) 물론 『대표본』도 대부분 ‘인외’(寅畏)나 ‘외’(畏)라는 말을 사용하나 가끔 ‘경외’(敬畏)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여'라는 표현은 『시편촬요』(‘내 원슈를 인하여’)부터 내려오는 표현이다. 다만 1930년 베어드 팀의 『개역』이 ‘원슈’를 ‘원슈들’로 복수로 읽은 것이 다르다. 그런데 베어드 팀의 『개역』에는 난하주가 붙어 있는데, ‘업대여나를 기다리는자들을 인하여’(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을 인하여)라는 대체 번역이다. 이 난하주는 영어성경 ASV의 ‘them that lie in wait for me’를 그대로 따른 듯하다. 곧 『시편촬요』와 베어드 팀의 『개역』이 『개역한글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역개정판』은 ‘인하여’를 ‘말미암아’라는 쉬운 말로 바꾸어 읽는다. 그러나 난하주의 ‘인하여’는 그대로 읽었다. 일관성을 잃은 모습이다.

『개역한글판』의 ‘주의 의’는 히브리어 ‘치드카테카’(צדקתה)를 옮긴 표현으로 1906년 『구역』(‘주의 의’)부터 내려오는 표현이다. 『시편촬요』는 ‘주의 올흔 가운데’(주의 옳은 가운데)로 『개역개정판』은 ‘주의 공의’로 읽었다. 『시편촬요』의 ‘올흔 가운데’는 토박이말이기에 이해가 되는 읽기이나 『개역개정판』의 ‘공의’는 꼭 그렇게 바꾸어야만 했을까? 본 절에서는 『개역개정판』이 그렇게 개정 작업을 잘 한 것 같지 않다. 일관성을 잃거나 의미 없는 대체 번역어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개역개정판』의 ‘인도하시고’는 베어드 팀의 1930년 『구역』(‘인도하시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표현이다. 물론 1906년 『구역』이 ‘인도하시며’로 읽었기에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여기서 ‘인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누아흐’(נח)를 옮긴 말인데 사실 『시편촬요』의 ‘잇쓰시고’(이끄시고)가 훨씬 쉽고 이해가 잘 되는 번역어이다. 후대에 갈수록 어휘 선택이 한자말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도하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웨레쉐브스키 주교가 번역한 두 한문성경 『북경관화역 구약』이나 『시주교역』의 ‘引導’(인도)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는 철자법만 다를 뿐 1930년 베어드 팀의 『개역』(‘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을 거쳐 『개역개정판』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표현이다. 이 표현의 경우 앞과 다르게 한자말을 토박이말로 바꾼 경우이다. 『시편촬요』는 ‘내 압헤 평하게 하옵소서’(내 앞에 평하게 하옵소서)라고 읽었고 1906년 『구역』도 ‘내 압헤 평탄케 하옵소서’라고 비슷하게 읽었다. 물론 『시편촬요』와 1906년 『구역』이 ‘목전’(目前)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읽은 것은 잘 한 일이다. 앞 5절에도 ‘목전’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의 ‘목전’은 히브리어 ‘레-네게드 에이네이-카’(לנגד עיני-י)를 옮긴 것이고 여기는 ‘레-파나이’(לפני)를 옮긴 것이다. 따라서 앞 5절의 ‘목전’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내 면전’이라고 해야 한다.

히브리어 ‘하브샤르’(חושך)를 『시편촬요』는 ‘평하게 하옵소서’(평하게 하옵소서)로 1906년 『구역』은 ‘평탄케 하옵소서’(평탄케 하옵소서)라고 읽



었다. 『시편촬요』는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구역』은 ‘걸림돌이 없이 하다’로 읽었다. 『계일-이원모역』은 ‘짧게 줄인 풀이역’이라는 평가와 다르게 ‘주의 平坦한 길노 行케 ㅎ쇼셔’라고 길게 풀어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히브리어는 단지 ‘평평하게 하다’나 ‘고르게 하다’라는 뜻이다.<sup>29)</sup> 이와 달리 1930년 베어드 팀의 『개역』이 ‘곳게 ㅎ쇼셔’로 읽은 이래로 지금까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앞의 번역과는 달리 윤리적인 해석이 가미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 3.10. 시편 5:9

본 절의 뒷부분은 『시편촬요』에서 그대로 온다. 『시편촬요』가 ‘목구멍은 열린 무덤 긋고 혀로는 아침 ㅎ읍 ㄴ이다’로 읽는데 『개역개정판』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침 하나이다’라고 별로 다르지 않게 읽기 때문이다.

다만 앞부분에서 히브리어 ‘곧음’이나 ‘바름’이라는 뜻의 ‘네코나’(נְכוּנָה)를 성경마다 달리 읽는다. 역본마다 ‘츄후함’(시편촬요)이나 ‘정직함’(구역)과 ‘정직’(계일-이원모역) 그리고 ‘신실함’(개역)으로 다르다. 물론 ‘신실함’은 1930년 베어드 팀의 『개역』에서 시작한다. 『시편촬요』는 ‘츄후’(忠厚)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데 ‘성실하고 순박하고 인정이 후하다’는 뜻이다.<sup>30)</sup>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독특한 번역어로 신학적 해석이 많이 들어간 말이다. 『구역』(1906, 1908, 1911)의 ‘정직(正直)함’이나 『개역』(1930, 1936, 1938)의 ‘진실(眞實) 또한 해석이 들어간 번역어이다. 하지만 한문성경이나 일어성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번역어이다.

『개역한글판』의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는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의 ‘저희 심중이 심히 악 ㅎ도다’에서 비롯되어 1936년 『개역』의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를 거쳐 지금까지 내려오는 부분이다. 『개역개정판』은 이 가운데 ‘저희 심중’을 ‘그들의 심중’으로 바꾸어 읽는데 꼭 이렇게 바꾸어야만 할까?

### 3.11. 시편 5:10

히브리어로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엘로힘)을 우리말 성경은 모두 맨 앞에 ㄱ집어내었다. 본 절의 두 주제어 ‘정죄하다’와 ‘배역하다’는 말은 모두 1906년 『구역』의 독특한 번역어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물론 문장

29) HALOT, 450.

30) 『漢韓大字典』, 739, 1575.

구성은 약간 바뀌었다.

다음 부분에서 『구역』(1906, 1908, 1911)은 ‘제 죄로 제가 너머지게 하옵소서’(제 죄로 제가 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읽는 반면 『개역』(1936, 1938)은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의 ‘저희 죄로 싸지게 하고’의 ‘저희’를 ‘자귀’로 고쳐 ‘자귀 죄에 싸지게 하시고’로 읽는다. 이 부분은 『구역』 전통보다는 『개역』 전통의 번역이 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어 ‘나팔’ (נַפֵּל)을 잘 살린 번역인 듯하다.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의 ‘그 만흔 허물노 인하여 너희를 쫓치소서 너희가 당신을 비역함이니이다’는 맞춤법만 바꾸어 이후의 번역에 그대로 이어진다. 물론 ‘당신’은 ‘주’로 바꾼다. 이 부분은 한문성경이나 중문성경 그리고 일어성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번역을 선보인다. 베어드 팀의 『개역』이 『구역』(1906, 1908, 1911)의 ‘죄’(罪)를 ‘허물’이라는 토박이말로 바꾸어 읽은 것은 앞 절에서 이전 번역의 토박이말을 한자말로 바꾸어 읽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폐샤’(פֶּשַׁע)를 이렇게 ‘허물’로 읽은 것은 앞 4절의 ‘라’(רָע)나 5절의 ‘아벤’(אָבֵן)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절에서는 ‘죄악’으로, 5절에서는 ‘악’으로 읽기 때문이다.

### 3.12. 시편 5:11

『시편촬요』의 첫 낱말 ‘오직’은 히브리어 연결사 ‘바브’(וּ)를 반영한 번역어로 보인다. 그런데 『구역』(1906, 1908, 1911)에서 ‘므룻’으로 바뀌었다가 1936년 『개역』부터 다시 ‘오직’으로 바뀐다. 특이한 점은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에는 이 표현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1936년 『개역』이 피터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피터스는 이렇게 자신이 번역한 『시편촬요』의 번역어를 다시 사용하고 싶었던 듯하다. 『구역』의 번역어 ‘므룻’(므룻)은 언더우드의 『한영즈던』(1890)에는 ‘Therefore, for, but, in a word’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sup>31)</sup> 그런데 영어성경 KJV와 ASV는 이 부분이 ‘but’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두 영어성경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언더우드의 사전이 한자말 ‘凡’(범)을 수록한 것을 보면 한문성경 『대표본』이나 『브리지만-컬벳슨역』의 ‘凡’(범)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중문성경 『화합본』(1919)도 ‘凡’(범)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구역』(1906, 1908, 1911)보다 늦게 나온 것이기에 『화합본』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이하게도 『시편촬요』의 ‘쥬를 의뢰하는 자들’(주를 의뢰하는 자들) 가

31) Horace Grant Underwood, 『韓英字典 한영즈던』, 80.

운데에서 ‘의뢰하는 자’라는 표현은 일어성서 『메이지역』(‘依頼む者’)을 닮았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한문성경 『시주교역』(‘倚頼主者’)과 똑같으나 『시주교역』(1902)이 『시편촬요』(1898)보다 늦게 나온 것이기에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일-이원모역』에도 등장하는 ‘依頼’(의뢰)라는 이 용어는 『메이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의’자의 한자 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부분에서 『구역』(1906, 1908, 1911)은 ‘주를 의지하는 자’라고 읽었는데 특히 ‘의지하다’라는 표현은 영어성경 KJV의 ‘all those that put their trust in thee’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달리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은 ‘당신의게 피하는 자’라고 읽었는데 특히 ‘피하다’라는 표현은 영어성경 ASV의 ‘all those that take refuge in thee’를 닮았다. 따라서 여기서 『구역』 전통은 KJV를, 『개역』 전통은 ASV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개역』(1936, 1938, 1952, 1961)은 ‘주의게 피하는 자’와 ‘주에게 피하는 자’로 옮긴다. 『개역 개정판』은 이것을 단순히 ‘주께 피하는 자’로, 곧 ‘의게’(에게)를 ‘께’로 바꾸어 읽는다.

『시편촬요』가 훌륭한 점은 앞 5절(‘죄악을 짓는 자들을 모다’)에서 히브리어 ‘쿨’(כּוּל)을 ‘모든’이라는 관형사로 읽지 않고 부사 ‘모다’(모두)로 읽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모다’(주를 의뢰하는 자들이 모두)로 읽는다. 이 히브리어를 『구역』(1906, 1908, 1911)은 히브리어 ‘쿨’(כּוּל)을 생략하고 읽었지만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당신의게 피하는 자는 다’)은 ‘다’로 바꾸어 읽었다. 베어드 팀은 여기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노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세심한 읽기는 『개역 개정판』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개역개정판』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사람’이라는 번역어가 쉬운 말이기는 하지만 일관성을 잃은 결과로 나온 번역어이다. 앞에서는 ‘오만한 자들’(5절)이나 ‘거짓말하는 자들’(6절) 또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6절)나 ‘속이는 자’(6절)로 ‘자’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의 ‘기뻐하며(שמח) … 기뻐 외치고(גִּבַּח) … 즐거워하리이다(גִּבַּח)’라는 표현은 성서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이어져 나오는 이 표현이 『시편촬요』에서는 ‘즐거워 하고 … 깃버 노래 하며 … 깃버 흘지어다’로 거꾸로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구역』(1906, 1908, 1911)이 히브리어를 더 잘 반영한 듯하다. 『구역』 전통에서는 ‘깃버 흘 거시오 … 소릿 지를 거슨 … 깃버 썰 거시로다’라고 읽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개역』 전통에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

『개역개정판』의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베어

드 팀의 1930년 『개역』(‘당신의 보호로 인하여’)에서 시작한 이 표현은 약간 어색한 우리말 표현이다. 어색하기는 『구역』 전통(‘쥬씩셔 더희를 덤허 보호하심이니’)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덤허’(덥어)라는 말은 굳더더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장 먼저 나온 『시편촬요』(‘쥬씩셔 저희를 보호하심니’)가 오히려 쉽고 분명한 우리말 표현이다.

### 3.13. 시편 5:12

『시편촬요』와 『구역』(1906, 1908, 1911)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대개’는 물론 앞 4절과 9절 그리고 10절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불변화사 ‘키’(כִּי)의 번역어이다. 그런데 『게일-이원모역』 이후부터 이 용어는 한글 성서에서 사라진다.

본 절에서는 부름말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읽을 때 중간쯤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1936년 이후의 『개역』부터 『개역개정판』까지 모두 맨 앞에 등장한다. 앞 1절이나 6절과 마찬가지로 이 부름말을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은 여기서 ‘당신은 의인을 복주심이여 여호와여 더를 은혜로 호위하심을 방패로 흠 곳치 하시리로다’라고 읽어 히브리어 문장 순서대로 부름말을 중간에 위치시켜 읽었다. 실제로 이렇게 옮겨도 우리말 표현에는 어색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세심한 노력을 이후의 한글 성서가 따르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식의 문장은 1906년 『구역』(‘의인의게 복을 주시느니’)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의인’(義人)은 히브리어 ‘차딕’(צַדִּיק)을 옮긴 말인데 『시편촬요』(‘옴흔 자의게 장춧복을 주시며’)의 ‘옴흔 자’(옴은자)가 그 뜻을 더 분명하고 쉽게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후대의 한글 성경에는 ‘의인’으로 고정되어 아쉬운 대목이다. 아마도 한문성경 『브리지만-겔벗슨역』이나 『시주교역』의 ‘義人’(의인)을 따른 듯하다. 중문성경 『화합본』도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복을 준다’는 말은 히브리어 ‘베레크’(בָּרַךְ)를 옮긴 것으로 『브리지만-겔벗슨역』이나 『북경관화역 구약』의 ‘賜福’(사복)을 따른 듯하다. 요즘에 ‘축복한다’는 말이 ‘복을 준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과 다르다. 한문성경이나 일어성서와 달리 한글 성경은 일관되게 ‘축복한다’는 말 대신 ‘복을 준다’는 표현을 사용한다.<sup>32)</sup>

『시편촬요』는 ‘호위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게일-이원모역』이 이

32) 이환진, “한·중·일 성경의 성서 히브리어 ‘베라크’(בָּרַךְ) 이해 - ‘축복하소서’인가 ‘복을 내리소서’인가”, 『성경원문연구』 34 (2014), 32-53 참조.

용어를 사용하고 또 1930년 『개역』이후부터 이 용어가 한글 성서 공인역에서 굳어졌다. 아마도 『북경관화역 구약』(‘四面護衛他’)에서 온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그런데 『구약』 전통의 ‘에우다’가 더 쉽고 잘 이해되는 말이 아닐까?

‘은혜’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라촌’(לָצוֹן)을 옮긴 말로 보인다. 일어성서 『메이지역』(‘恩惠’)에서 온 용어일까? 아니면 영어성서 KJV나 ASV의 ‘favor’에서 온 용어일까? 언더우드의 『한영즈던』(1890)의 ‘Favor’ 항목의 명사 부분에 ‘은혜, 덕택, 인공’이라는 설명이 나온다.<sup>33)</sup>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본다.

#### 4. 시편 5편 분석 요약

『시편촬요』의 경우 ‘노래’(표제어)와 ‘주’(3절)를 비롯하여 여섯 개의 단어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된다. 또한 ‘내 말슴에 귀를 기우리시고’(1절)와 ‘오직 나는’(7절)을 포함하여 여섯 개의 표현이 『개역개정판』에서 거의 그대로 사용된다. 심지어 『시편촬요』의 9절 하반절(‘목구멍은 열닌 무덤 꺾고 혀로는 아침 흠 읊는다’)은 표기법만 바꾸어 『개역개정판』에 그대로 반복된다.

『구약』(1906, 1908, 1911)의 경우 ‘다윗’(표제어)과 ‘내 소리’(3절)를 위시하여 여섯 개의 단어가 『개역개정판』에 그대로 등장한다. 또한 ‘내 심수를 통촉히 읊쇼셔’(1절)와 ‘들어갈 것이오… 경박히 겹치이다’(7절)를 포함하여 다섯 개의 표현이 『개역개정판』에 표기법만 바뀐 채 그대로 쓰인다.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의 경우 4절의 ‘신’과 ‘죄악’을 포함하여 네 개의 단어가 『개역개정판』에 그대로 등장한다. 또한 ‘나의 부르지는 소리’(2절)와 ‘흠뻑 류히 못히 리로다’(4절)를 포함하여 아홉 개의 표현이 『개역개정판』에 거의 그대로 사용된다. 특이한 점은 ‘당신의 길을 내 목전에 꺾게 하쇼셔’(8절)나 ‘그 만흔 허물노 인히야 너희를 쫓치쇼셔’(10절)와 같이 1930년 『개역』의 긴 문장이 그대로 『개역개정판』에 거의 그대로 들어온다는 점이다. 여기에 비해 피터스 팀의 1936년 『구약』은 오직 ‘방패로 함 갖치 은혜로 너를 호위하시리이다’(12절)라는 문장만 『개역개정판』에 그대로 들어온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이 지금껏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후대 성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시편의 경우 5편만 분석했지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33) Horace Grant Underwood, 『韓英字典 한영즈던』, Part II, 106.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5편을 분석한 것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나온 역본이 뒤에 나온 역본에, 특히 『개역개정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표시해 보았다.

#### 4.1. 표제어

‘다윗’ (개역개정) ⇨ ‘다윗’ (1906 구역)  
 ‘식히어’ (1906 구역) ⇨ ‘식이어’ (시편촬요) ⇨ 使 (대표본)  
 ‘통쇼’ (1912 구역) ⇨ ‘통쇼’ (시편촬요) (⇨ 簫 [대표본])  
 ‘관악’ (개역개정) ⇨ ‘관악’ (개역한글) ⇨ ‘관악’ (1930 개역)  
 ‘시’ (개역개정) ⇨ ‘시’ (시편촬요) ⇨ 詩 (브리지만-컬벳슨역)  
 ‘노래’ (개역개정) ⇨ ‘노래’ (시편촬요) (⇨ 歌 [시주교역] ⇨ 歌 [북경관화역 구역])

#### 4.2. 시편 5:1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개역개정) ⇨ 나의 말에 귀를 기우리샤 (1930 개역)  
 ⇨ 내 말씀에 귀를 기우리시고(1906 구역) ⇨ 내 말씀에 귀를 기우리시고 (시편촬요)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개역개정) ⇨ 나의 심스를 통촉하소서 (1930 개역)  
 ⇨ 내 심스를 통촉하옵소서 (1906 구역)

#### 4.3. 시편 5:2

님군 (1906 구역) (⇨ 님금 [시편촬요]) ⇨ 大君 (대표본)  
 왕 (개역개정) ⇨ 왕 (1936 개역) ⇨ 왕 (1930 개역) ⇨ 왕 (게일-이원모역) ⇨ 王 (브리지만-컬벳슨역, 북경관화역 구역, 시주교역)  
 하나님 (1936 개역) ⇨ 하느님 (1906 구역) ⇨ 하느님 (시편촬요) ⇨ 하나님 (예수성교전서) ⇨ 하느님 (예수성교전서 누가복음)  
 ‘나의 왕 나의 하느님이여’ (1936 개역) (⇨ ‘我的王我的上帝何’ [화합본])  
 ‘내가 부르짖는 소리’ (2005 개역개정) ⇨ ‘나의 부르지지는 소리’ (1930 개역)  
 대개 (1906 구역) (⇨ 대개 [1900 구역] ⇨ 蓋 [브리지만-컬벳슨역])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개역개정) ⇨ ‘내가 당신께 기도하노이다’ (1930 개역) ⇨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시편촬요)

#### 4.4. 시편 5:3

나의 소리 (개역개정) ⇨ 나의 소래 (1930 개역) ⇨ 내 소리 (1906 구역)  
 기도 (개역개정) ⇨ 기도 (1930 개역) ⇨ prayer (KJV, ASV) (작은 글씨)  
 주 (개역개정) ⇨ 주 (1936 개역) ⇨ 주 (1906 구역) ⇨ 주 (시편촬요)  
 바라리이다 (개역개정) ⇨ 바라리이다 (1936 개역) ⇨ 브라리로다 (1930 개역)  
 ⇨ 브라리로다 (계일-이원모역) ⇨ 브라겏습노이다 (시편촬요)

#### 4.5. 시편 5:4

죄악 (개역개정) ⇨ 죄악 (개역한글) ⇨ 죄악 (1938 개역) ⇨ 죄악 (1930 개역)  
 기뻐하는 (개역개정) ⇨ 기뻐하는 (개역한글) ⇨ 깃버하는 (1938 개역) ⇨ 깃  
 버하시느 (1906 구역) ⇨ 깃버하시느 (시편촬요)  
 신 (개역개정) ⇨ 신 (개역한글) ⇨ 신 (1938 개역) ⇨ 신 (1930 개역)  
 악인 (개역개정) ⇨ 악인 (1961 개역한글) ⇨ 악인 (1938 개역) ⇨ 악인 (1930  
 개역) ⇨ The evil man (ASV) (난하주)  
 함께 유하지 못하며 (1961 개역한글) ⇨ 함께 류하지 못하며 (1938 개역) ⇨  
 흠씨 류하지못하리로다 (1930 개역)

#### 4.6. 시편 5:5

오만한 자들 (개역개정) ⇨ 오만한 자 (개역한글) ⇨ 오만한자 (1938 개역) ⇨  
 오만흔자 (1906 구역)  
 목전에 (개역개정) ⇨ 목전에 (개역한글) ⇨ 목전에 (1930 개역) ⇨ 目前 (브리  
 지만-컬벳슨역)  
 서지 못하리이다 (개역개정) ⇨ 서지 못하리이다 (개역한글) ⇨ 서지못하리이  
 다 (1936 개역) ⇨ 서지못하리니 (1930 구역) ⇨ 서지못홀거시오 (1906 구역) ⇨  
 서지 못흠이여 (시편촬요) (⇨ 不能站 [북경관화역 구약]) ⇨ 不能立 (브리지만-  
 컬벳슨역)

4.7. 시편 5:6

거짓말 하는 자들 (개역개정) ⇨ 거짓말 하는 자 (1952 개역한글) ⇨ 거짓 말  
하는자(1930 개역) ⇨ 거짓 말하는자 (1906 구역) ⇨ 거짓 말하는 자들 (시편촬  
요)

떨망시키리이다 (개역개정) ⇨ 떨하시리이다 (1936 개역) ⇨ 떨히시리니  
(1906 구역) ⇨ 장춧 떨망케하시고 (시편촬요)

싫어하시나이다 (개역개정) ⇨ 싫어하시나이다 (1936 개역) ⇨ 슬혀하시도다  
(1930 개역) ⇨ 슬희여하시도다 (1906 구역)

4.8. 시편 5:7

오직 나는 (개역개정) ⇨ 오직 나는 (1936 개역) ⇨ 오직 나는 (1906 구역) ⇨  
오직 나는 (시편촬요) ⇨ 惟我 (브리지만-결벚슨역, 북경관화역 구역, 시주교역)  
풍성한 인자 (개역한글) ⇨ 풍성한 인자 (1936 개역) ⇨ 豊かなる仁慈 (페이지  
역)

힘 입어 (개역개정) ⇨ 힘 입어 (개역한글) ⇨ 힘넘어 (1936 개역)

집+성전 (개역개정) ⇨ 집+성전 (개역한글) ⇨ 집+성전 (1938 개역) ⇨ 집+성  
전 (1906 구역)

들어가...경배하리이다 (개역한글) ⇨ 들어가... 경배하리이다 (1938 개역) ⇨  
들어감이어...경빅히리로다 (1930 개역) ⇨ 들어갈 것이오... 경빅히켓느이다  
(1906 구역)

향하여 (개역개정) ⇨ 향하여 (개역한글) ⇨ 향하야 (1936 개역) ⇨ 향하야  
(1930 개역) ⇨ 향하야(1906 구역) ⇨ 향하야(시편촬요)

4.9. 시편 5편 8절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개역한글) ⇨ 나의 원수들을 인하야 (1930 개역) ⇨ 내  
원수를 인하야 (1906 구역) ⇨ 내 원수를 인하야 (시편촬요)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을 인하여 (개역개정) ⇨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  
들을 인하여 (1952 개역한글) ⇨ 엎대여나를기다리는자들을인하야 (1930 개역)



↳ them that lie in wait for me (ASV)

주의 의 (1961 개역한글) ↳ 주의 의 (1952 개역한글) ↳ 주의 의 (1930 개역)  
↳ 주의 의 (1906 구역)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개역개정) ↳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  
소서 (개역한글) ↳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1936 개역) ↳ 당신의 길  
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1930 개역)

#### 4.10. 시편 5:9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개역개정) ↳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개역한  
글) ↳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1952 개역한글) ↳ 너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1936 개역) ↳ 너희 입에 신실함이 없습니이다 (1930 개역)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개역개정) ↳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개역한  
글) ↳ 너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1936 개역) ↳ 너희 심중이 심히 악하도다  
(1930 개역)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개역개정) ↳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개역한글) ↳ 너희 목  
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너희 혀로는 아침하도다 (1930 개역) ↳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는 아침하도다 (1906 구역) ↳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침하도다 (시편촬요)

#### 4.11. 시편 5:10

그들을 정죄하사 (개역개정) ↳ 저희를 정죄하사 (개역한글) ↳ 너희를 정죄  
하사 (1930 개역) ↳ 너희를 정죄하옵시고 (1906 구역)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개역개정) ↳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개역한글)  
↳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1936 개역) ↳ 저희 꾀로 빠지게 하시고 (1930 개역)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개역개정) ↳ 그 많은 허물로 인  
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개역한글) ↳ 그 만흔 허물로 인하여 너희를 쫓치소서  
(1930 개역)

#### 4.12. 시편 5:11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개역개정) ⇨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1952 개역 한글) ⇨ 주의게 피하는자는 다 (1936 개역) ⇨ 당신의게 피하는자는 다 (1930 개역)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개역개정) ⇨ 주의 보호로 인하여 (1952 개역한글) ⇨ 주의 보호로 인하여 (1936 개역) ⇨ 당신의 보호로 인하여 (1930 개역)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개역개정) ⇨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1952 개역한글) ⇨ 당신 일흠을 스랑하는자들 (1930 개역) ⇨ 주의 일흠을 스랑하는 자들 (1906 구역) ⇨ 주의 일흠을 스랑하는 자들 (시편촬요)

#### 4.13. 시편 5:12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개역개정) ⇨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1952 개역한글) ⇨ 주는 의인의게 복을 주시고 (1936 개역) ⇨ 여호와는 義인의게 福 주심이여 (게일-이원모역) ⇨ 주께서 의인의게 복을 주시느니 (1906 구역)

더를 은혜로 호위하심을 방패로 함 곳치 하시리로다 (1930 개역) ⇨ 장춧 은혜로 저를 호위하심은 방패로 호위하심곳습느이다 (시편촬요)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1961 개역한글) ⇨ 방패로 함 갖치 은혜로 더를 호위하시리이다 (1936 개역)

### 5. 나가는 말

우리말 첫 시편 번역인 『시편촬요』부터 최근 『개역개정판』의 시편까지 시편 5편을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개역개정판』 속에는 어떤 전통이 들어 있는지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시편촬요』의 영향이 여전하다. 『구역』(1906, 1908, 1911)의 대본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둘째, 베어드 개역 팀이 작업한 1930년의 『개역』 시편의 영향 또한 지대하다. 거의 절반 이상 그 번역이 1936년 『개역』과 『개역한글판』 속에 들어와 있다. 생각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셋째, 『구역』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그러나 『구역』이 2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2절에서 히브리어 ‘키’(כִּי)의 번역어로 ‘대개’로 읽은 것은 모두 생략한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용어가 공인역에서는 1930년 『개역』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특별히 용어 면에서 『대표본』(1854)과 『브리지만-컬벳슨역』(1864) 그리고 『북경관화역 구약』(1875)과 『시주교역』(1902)과 같은 한문성경의 영향이 눈에 많이 띈다. 물론 중문성경 『화합본』(1919)과 공유하는 용어도 가끔 등장한다.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 시편의 경우 특이하게도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한문성경의 영향일까? 아니면 일어성서 『메이지역』(1887)의 ‘아나타’(あなた)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원문 성경을 번역한 때 문일까? 피터스 팀의 1936년 『개역』(1936, 1938) 시편이 다시 ‘주’(主)로 돌아간 것은 우리말 어법에 맞게 고친 것이지만 베어드 팀의 시도는 매우 인상적이다. 사실 ‘당신’이라는 이 용어는 『공동번역』(1977)과 『가톨릭성경』(2005)에 그대로 이어져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지금도 사용되기에 중요한 번역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학자들에 따라 『구역』(1906, 1908, 1911)<sup>34</sup>이나 『개역』(1930, 1936, 1938)이 원문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하기도 하고<sup>35</sup> 또는 원문에서 번역한 것을 고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36</sup> 시편 5편을 분석한 결과로 보면 『구역』은 『시편촬요』를 대본으로 삼은 듯하다. 그리고 『개역』은 『구역』을 앞에 놓고 원문을 보면서 고친 것이므로 원문에서 번역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듯하다. 원문에서 번역했다고 주장하는 『시편촬요』조차도 표제어를 보면 한문성경 『대표본』을 거의 그대로 옮겼고 베어드 팀의 1930년 『개역』 시편의 경우 난하주는 영어성경 ASV를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 원문성경을 읽어가면서 수많은 역본들을 참조하여 번역해낸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한글판』<sup>37</sup>과 『개역개정판』이다.

다섯째, 영어성경 KJV와 ASV의 영향이다. 특히 ASV의 난하주를 베어드 팀의 1930년 『구역』이 처음 채용한다. 그리고 이 대체 번역은 이후의 번역에 계속 이어진다.

34) 1906 시편, 1908 시편, 1911 구역, 이 세 본문은 1908년 본문에 오기가 한 글자 있었던 것을 1911년판에서 다시 바로잡은 변화만 있었다. 악독하니(1911) ⇨ 악독하니(1908) ⇨ 악독하니(1906): 1906년에 번역된 시편이 1911년 본문까지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보급의 필요에 따라 같은 본문을 출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부록에서 1906년 본문만 대표 본문으로 제시한다.

35) 박동현, “한국 교회에서 개역 성경이 갖는 의의 - 개역 성경의 재발견”,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의 역사』 (서울 정동제일교회: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15. 11. 24.), 10-11.

36)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에 관한 기초 연구”, 25.

37) 1952 『개역한글판』, 1958 『개역국한문한글판』, 1961 『개역한글판』,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도 본문의 번역에 변화가 없이 한글과 한자어의 표기만 차이가 있었다. 본고의 부록에서 1964년 본문만 참고로 제시한다.

여섯째, 최근에 나온 『개역개정판』은 개정 작업을 하면서 시편 5:8에서 ‘인하여’를 ‘말미암아’로 바꾼 것처럼 쉽게 고치기도 했다. 하지만 시편 5:11에서는 ‘자’(者)를 ‘사람’으로 고쳐 앞 절에서는 ‘자’를 그냥 두고 11절에서는 『개역한글판』의 ‘자’를 ‘사람’으로 고치기도 했다.<sup>38)</sup>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번역과 개정 그리고 교정에 참여한 번역자들의 엄청난 노력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일일이 교정하고 또 세심하게 다듬고 바꾼 노력이 본문 비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100여 년간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응집된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주제어>(Keywords)

시편 5편, 성경 번역, 개정, 구역(1906, 1908, 1911), 개역(1930, 1936, 1938), 개역한글판(1952, 1956, 1961, 1964), 개역개정판(2005).

Psalm 5, Bible translation, revision, Korean Old Version (1906, 1908, 1911), Korean Revised Version (1930, 1936, 1938), Korean Revised and Hankul (1952, 1956, 1961, 1964), New Korean Revised Version (2005).

(투고 일자: 2016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16년 2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3월 25일)

38) 신약을 보면 그리스어 ‘그래페’(graphē)가 모두 40회 등장하는데 『개역한글판』은 대부분 ‘성경’(聖經)으로 번역하였지만 4 군데에서는 ‘경’(經)으로 번역했다. 그런데 『개역개정판』은 이것을 모두 ‘성경’(聖經)으로 통일시켰다.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 성서』(가톨릭용),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원출판년 1977. (공동번역)
- 『舊新約聖書』(文理), 上海: 聖經公會, 1933; 원출판년 1854. (대표본)
- 『舊約聖經』(淺文理 上帝), 上海: 美國聖經會, 1925; 원출판년 1902. (시주교역)
- 『舊約全書』, 京都: 美華書院, 1874. (북경관화역 구약)
- 『舊約全書』, 福州: 大美國聖經會, 1896; 원출판년 1864. (브리지만-컬벗슨역)
-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새번역)
- 『聖經』, 香港: 聖經公會, 1964; 원출판년 1919. (화합본)
- 『성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52. (1952 개역)
- 『성경 개역』, 경성: 조선성서공회, 1938. (1938 개역)
- 『성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30. (1930 개역)
- 『시편』, 경성: 상임성서실행위원회, 1906 (대한 광무 십 년 병오). (1906 구역)
- 『시편』, 서울: 대영성서공회, 1908 (융희2년). (1908 구역)
-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심양: 문광서원, 1882. (2003 대한성서공회 영인본)
- 『引照 舊新約聖書』, 東京: 米國聖書協會.; 원출판년 1887. (메이지역)
- 『韓國聖經大全集 10』 - 구역 에스라-아가 (1911),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2002. (1911 구역)
- 『韓國聖經大全集 30』 - 선한문 관주 신약전서 (1926), 시편 개역 (1936),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2002. (1936 개역)
- 『韓國聖經大全集 32』 - 관주 구약전서(하) (1930),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2002. (1930 개역)
- 『韓國聖經大全集 41』 - 개역성경 구약(하) (1937),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2002. (1937 개역)
- 『韓國聖經大全集 52』 - 신약전서 개역 국한문 (1956), 시편 (1958),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2002. (1958 개역 국한문)
- 『韓國聖經大全集 7』 - 사도행전(1898), 누가복음(1898), 마가복음(1898), 시편촬요(1898), 마태복음(1898),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2002. (시편촬요)
-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in the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4; org. ed. 1611. (KJV)
-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York: Thomas Nelson & Sons, 1929; org. ed. 1901. (ASV)
- 金元中, 『虛辭大辭典』, 서울: 현암사, 2003.

- 김남구, “한문성경의 관계에서 본 일본어 성서 『메이지역』(1887)과 한글성서 -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5학년도 석사학위 논문, 2016.
-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에 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7-34.
- 도원시, 『구약공부』, 1893.
- 마테오 리치(利瑪竇), 『천주실의』, 송영배 외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99.
- 민영진, 『국역 성서 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民衆書林 編輯局 編, 『漢韓大字典』, 全面改訂・増補版, 서울: 民衆書林, 1997.
- 박동현, “한국 교회에서 개역 성경이 갖는 의의 - 개역 성경의 재발견”,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의 역사』, 서울 정동제일교회: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15. 11. 24., 7-55.
- 유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 번역 · 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시편촬요』 번역 평가”, 김이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편,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김이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6, 413-453.
- 이환진, “존스(조원시)의 『구약공부』(1893) 룯기 번역 분석”, 『신학과 세계』 67 (2010), 7-93.
- 이환진, “한 · 중 · 일 성경의 성서 히브리어 ‘베라크’(ברך) 이해 - ‘축복하소서’인가 ‘복을 내리소서’인가”, 『성경원문연구』 34 (2014), 32-53.
- 전무용, 조지윤, “한글 성서의 번역”,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46-64.
- “한글 성서 전시회”, 서울 정동제일교회: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2015. 11. 24., 1-45.
- Abbott-Smith, G., *A Manual of The Greek New Testament*, 3rd ed., Edinburgh: T. & T. Clark, 1986.
- Best, Thomas F., ed., *Hearing and Speaking The Word, Selections from the Works of James Muilenburg*, Chino, CA: Scholars Press, 1984.
- Gale, James Scarth, 『韓英字典』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Fukuin Printing Co., 1914.
- Koehler, Ludwig,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2 vols., Study edition, M. E. J. Richardson, trans.,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1.

Les Missionnaires de Corée, ed., 『한불즈던 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C. Lévy, 1880.

Underwood, Horace Grant, 『韓英字典 한영즈던』.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Student Edition, Yokohama; Shanghai; Hongkong; Singapore: Kelly & Walsh, Ltd., 1890.

<Abstract>

**A Chronological Review of the Translation and Revision of Psalm 5:  
from Alexander A. Pieters' Psalms (1898)  
to New Korean Revised Version, 4th ed. (2005)**

Hwan-Jin Yi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4th ed. (2005) can be said to be the Korean King James Version in that its earlier versions have been used for Bible study and worship by Korean Protestants since 1938. This Bible, as implied in its name, is the result of many people's painstaking efforts over the years.

More specifically, the first Korean Psalms by Alexander A. Pieters has heavily influenced the later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The book of Psalms in the Korean Old Version (1906) especially adopted a lot of expressions and terms from the work of Alexander A. Pieters, who had translated it from the original Hebrew text into Korean in 1898.

In 1930, W. M. Baird's team produced a revision of the book of Psalms from the Korean Old Version. Interestingly, due to Baird's death, Alexander A. Pieters took charge of the Korean Old Version revision, including Psalms since 1931. At last, the Korean Revised Version was completed by his team and published in 1938. But when we compare the book of Psalms by Baird's team (1930) with that of Pieters' team (1898), we can see that Baird's team did not change much of the earlier work.

Recently the Korean Bible Society produced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due to linguistic and social changes in Korea. This version was introduced in 2005 as a revision of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61). Having closely compared the Psalms of the KRV with those by Alexander A. Pieters (1898), and the Korean Old Version revision team led by W. H. Baird (1930) and by Pieters (1936), it obviously has taken the Psalms by Pieters (1898) as the basis for their revision work. The overview of translations affirms that most part of Psalm 5 revised by Baird's team has been preserved and carried down to the current New Korean Revised Versio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has more or less changed the Korean Revised Version with their linguistic and theological tastes. This new version is an achievement of time-consuming and painstaking work of various people



including Western missionaries like Alexander A. Pieters and W. M. Baird over the years. Of course, the work could not have been accomplished without the help of Korean translators such as Yi Won-Mo.

<부록: 시편 5편 본문>

『시편촬요』(1898), 『시편』(1906), 『신역신구약전서』(1925, 게일-이원모역), 『성경전서』(1930, 17권의 개역 본문 포함), 『구약전서』(1936), 『성경개역』(193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1964), 『성경전서 개역개정판』(2005)

**1. 시편 5편의 표제어**

- (시편촬요) 다윗이 지은 시니 령장을 식이어 통쇼로 흥느노래라
- (1906 구역) 다윗의 시니 령장을 식혀 통쇼에 맞출 노래라
- (1925 게일-이원모역) [다윗의 詩니 伶長의 洞簫에 맞초다]
- (1930 개역) [령장으로 \*관악에 맞출 다윗의 시]
- (1936 개역) [다윗의 시, 령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 (1938 개역) [다윗의 시, 령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 (1952 개역한글판)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다윗의 詩, 伶長으로 管樂에 맞춘 노래]
- (1961 개역한글판) [다윗의 시, 령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다윗의 詩, 伶長으로 管樂에 맞춘 노래]
- (2005 개역개정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2. 시편 5:1**

- (시편촬요) 여호와여 내 말슴에 귀를 기우리시고 내 싱각흥는 거슬 하랑흥 읊쇼셔
- (1906 구역) 여호와여 내 말슴에 귀를 기우리시고 내 심스를 통축흥 읊쇼셔
- (1925 게일-이원모역) 여호와는 내 말슴에 귀를 기우리심이여 나의 心事를 洞燭흥쇼셔
- (1930 개역)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우리샤 나의 심스를 통축흥쇼셔.
- (1936 개역)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우리샤 나의 심사를 통축하쇼셔
- (1938 개역)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우리샤 나의 심사를 통축하쇼셔
- (1952 개역한글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축하소서
-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心思를 洞燭하소서
- (1961 개역한글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축하소서
-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心思를 洞燭하소서
- (2005 개역개정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3. 시편 5:2**

- (시편촬요) 내 님금과 내 하늘님이여 내가 쥬의 기도흥오니 웨쳐 부르는 소리를 드르쇼셔
- (1906 구역) 내 님군이시오 내 하늘님이여 내 불너 알외는 소리를 드르시읍쇼셔 대개 쥬

- 의 기도하옵는다
- (1925 게일-이원모역)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祈禱함이여 나의 부르지지는 소리를 드르  
시리로다
- (1930 개역)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지는 소리를 드르소서 내가 당신의 기  
도하느이다。
- (1936 개역)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지는 소리를 드르소서 내가 주의 기도  
하나이다
- (1938 개역)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지는 소리를 드르소서 내가 주의 기도  
하나이다
- (1952 개역한글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짓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짓는 소리를 들으소  
서 내가 주께 祈禱하나이다
- (1961 개역한글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짓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짓는 소리를 들으소  
서 내가 主께 祈禱하나이다
- (2005 개역개정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짓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 4. 시편 5:3

- (시편촬요) 여호와여 장춧 아침에 내 목소리를 드르시고 내가 아침에 주의 원함을 베폴  
고 바라겠습는다
- (1906 구역) 여호와여 아침에 내 소리를 드르실터이오니 아침에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  
를 베폴고 바라보겠는다
- (1925 게일-이원모역) 여호와는 아침에 내 소리를 들르심이며 내가 主를 向하여 바라리  
로다
- (1930 개역)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드를 것이여 아침에 내가 당신의 기도하고 바  
라리로다。
- (1936 개역)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드르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의 기도 하  
고 바라리이다
- (1938 개역)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드르시리니 아침에 내가주의 기도하  
고 바라리이다
- (1952 개역한글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여호와여 아침에 主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主께 祈禱하고 바라리이다
- (1961 개역한글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祈禱하고 바라리이다  
 (2005 개역개정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5. 시편 5:4**

(시편촬요) 대개 주는 악한 거슬 깃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불의한 거시 주와 함께 있지못하겠습니이다  
 (1906 구역) 대개 주는 악한 일을 깃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겠습니이다  
 (1925 계일-이원오역) 主 하나님은 惡을 깃버 아니하시며 惡이 함께 하지 못하리로다  
 (1930 개역) 당신은 죄악을 깃버하는 신이 아님이여 악이 (난하주 악인이) 당신과 함께 류하지못하리로다.  
 (1936 개역) 주는 죄악을 깃버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난하주: 악인이) 주와 함께 류하지못하며  
 (1938 개역) 주는 죄악을 깃버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난하주: 악인이) 주와 함께 류하지 못하며  
 (1952 개역한글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난하주: 악인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주는 罪惡을 기뻐하는 神이 아니시니 惡이 (난하주: 惡人 이) 주와 함께 留하지 못하며  
 (1961 개역한글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난하주: 악인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주는 罪惡을 기뻐하는 神이 아니시니 惡이 (난하주: 악인 이) 주와 함께 留하지 못하며  
 (2005 개역개정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난하주: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6. 시편 5:5**

(시편촬요) 거만한 자들이 주의 눈 압헤 서지못할거시오 주의 죄악을짓는자들을 모다 뒤워하시습니이다  
 (1906 구역) 오만한자는 주의 눈 압헤 서지못하리니 주의 악을 행하는 모든자를 뒤워 하시니이다  
 (1925 계일-이원오역) 傲慢한 자는 主의 압헤 서지 못함이며 不義者를 뒤워하시도다  
 (1930 개역) 오만한자가 당신 목전에 서지못함이며 당신은 모든 형악자를 뒤워하시도다.  
 (1936 개역) 오만한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뒤워하시며  
 (1938 개역) 오만한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뒤워하시며

- (1952 개역한글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 하시며
-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傲慢한 者가 主의 目前에 서지 못하리이다 主는 모든 行惡者를 미워하시며
- (1961 개역한글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 하시며
-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傲慢한 者가 主의 目前에 서지 못하리이다 主는 모든 行惡者를 미워하시며
- (2005 개역개정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7. 시편 5:6**

- (시편촬요) 주께서 거짓 말하는 자들을 장차 멸망케하시고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몹시 미워하시옵느니라
- (1906 구역) 거짓 말하는자를 멸하시리니 피를 흘리고 속이는자를 여호와께서 극히 슬회하시도다
- (1925 계일-이원모역) 거짓말하는 者를 滅하심이어 殘害하고 欺罔하는자를 슬혀하시도다
- (1930 개역) 당신은 거짓 말 하는자를 멸하심이어 피흘니기를 즐기고 속이는자를 여호와 | 슬혀하시도다。
- (1936 개역) 거짓말 하는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흘니기를 즐기고 속이는자를 슬혀하시나이다
- (1938 개역) 거짓말 하는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흘니기를 즐기고 속이는자를 슬혀하시나이다
- (1952 개역한글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거짓말하는 者를 滅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者를 싫어하시나이다
- (1961 개역한글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거짓말하는 者를 滅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者를 싫어하시나이다
- (2005 개역개정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8. 시편 5:7**

- (시편촬요) 오직 나는 주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 주의 던에 드러가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성년을 향하여 승비하겠습느니라

- (1906 구역) 오직 나는 만흔 인스ㅎ심을 넘음으로 주의 집에 드러갈 거시오 또 주를 두려 위함으로 주의 성던을 향ㅎ야 경비ㅎ겟느이다
- (1925 게일-이원모역) 나는 寵愛를 만히 넘음이며 主의 집에 드러가리로다 主를 敬畏함이며 그殿을 向ㅎ야 敬拜ㅎ리로다
- (1930 개역) 나는 당신 인스ㅎ의 풍성함으로 당신의 집에 드러감이며 당신을 경외함으로 성던을 향ㅎ야 경비ㅎ리로다.
- (1936 개역)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드러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던을 향ㅎ야 경배하리이다
- (1938 개역)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드러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던을 향ㅎ야 경배하리이다
- (1952 개역한글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ㅎ야 경배하리이다
-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오직 나는 主의 豊盛한 仁慈를 힘입어 主의 집에 들어가 主를 敬畏함으로 聖殿을 向ㅎ야 敬拜하리이다
- (1961 개역한글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ㅎ야 경배하리이다
-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오직 나는 主의 豊盛한 仁慈를 힘입어 主의 집에 들어가 主를 敬畏함으로 聖殿을 向ㅎ야 敬拜하리이다
- (2005 개역개정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ㅎ야 예배하리이다

## 9. 시편 5:8

- (시편촬요) 여호와여 내 원슈를 인ㅎ야 주의 울흔 가운데로 나를 잇쓰시고 주의 길을 내 압헤 평ㅎ게 ㅎ읍쇼셔
- (1906 구역) 여호와여 내 원슈를 인ㅎ야 주의 의로 나를 인도ㅎ시며 주의 길을 내 압헤 평탄케 ㅎ읍쇼셔
- (1925 게일-이원모역) 義로오신 여호와 | 나를 怨讐의게서 引導ㅎ심이며 主의 平坦한 길노 行케 ㅎ쇼셔
- (1930 개역) 여호와여 나의 원슈들을 인ㅎ야 (난하주: 업딛여나를기드리는자들을인ㅎ야) 당신의 의로 나를 인도ㅎ시고 당신의 길을 내 목전에 꺾게 ㅎ쇼셔.
- (1936 개역) 여호와여 나의 원슈들을 인ㅎ야 (난하주: 업대여나를기다리는자들을인ㅎ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꺾게 하쇼셔
- (1938 개역) 여호와여 나의 원슈들을 인ㅎ야 (난하주: 업대여나를기다리는자들을인ㅎ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꺾게 하쇼셔
- (1952 개역한글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ㅎ야 (난하주: 업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을 인ㅎ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꺾게 하쇼셔
-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여호와여 나의 怨讐들을 因ㅎ야 主의 義로 나를 引導하시고 主의 길을 내 目前에 꺾게 하쇼셔

- (1961 개역한글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여호와여 나의 怨讐들을 因하여 主의 義로 나를 引導하시고 主의 길을 내 目前에 곧게 하소서
- (2005 개역개정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난하주: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을 인하여)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10. 시편 5:9**

- (시편촬요) 대개 저희 님에는 충후함이 업고 속은 몹시 악하며 목구멍은 열닌 무덤 갓고 혀로는 아침흐옵느이다
- (1906 구역) 대개 너희 입에 정직함이 업스며 너희 속이 악독하니 그 목구멍은 열닌 무덤 갓고 그 혀는 아침흐느이다
- (1925 게일-이원모역) 너희 입에 正直이 업고 惡毒함이여 목구멍은 열닌 무덤 갓고 그 혀는 阿諛호도다
- (1930 개역) 너희 입에 신실함이 업슴이여 너희 심중이 심히 악호도다 너희 목구멍은 열닌 무덤 갓흠이여 너희 혀로 아침흐도다.
- (1936 개역) 너희 입에 신실함이 업고 너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너희 목구멍은 열닌 무덤 갓고 너희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 (1938 개역) 너희 입에 신실함이 업고 너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너희 목구멍은 열닌 무덤 갓고 너희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 (1952 개역한글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업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저희 입에 信實함이 업고 저희 心中이 심히 惡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阿諛하나이다
- (1961 개역한글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업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저희 입에 信實함이 업고 저희 心中이 甚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阿諛하나이다
- (2005 개역개정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업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11. 시편 5:10**

- (시편촬요) 하느님이여 이 사람의게 죄를 주쇼셔 저희의 죄함으로 패를 불지어다 저희가 쥬를 거역흐엿스니 그 만흔 허물노 쏘츠쇼셔
- (1906 구역) 하느님이여 저희를 定罪흐옵시고 제 죄로 제가 너머지게 흐옵쇼셔 저희가 죄악이 만흐니 내여 쏘츠쇼셔 대개 쥬를 背역흠이니이다
- (1925 게일-이원모역) 너희는 主를 背逆함이여 그 만흔 罪를 定호샤 자기 죄에 너머지게 흐쇼셔

- (1930 개역) 하느님이여 저희를定罪하사 자기 죄로 빠지게 하고 그 만흔 허물노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당신을 배역함이니이다
- (1936 개역) 하나님이어 저희를定罪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만흔 허물노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 (1938 개역) 하나님이어 저희를定罪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만흔 허물노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 (1952 개역한글판) 하나님이어 저희를定罪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하나님이어 저희를定罪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因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主를 背逆함이니이다
- (1961 개역한글판) 하나님이어 저희를定罪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하나님이어 저희를定罪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因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主를 背逆함이니이다
- (2005 개역개정판) 하나님이어 그들을定罪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 12. 시편 5:11

- (시편촬요) 오직 주를 의뢰하는 자들이 모다 즐거워하고 주께서 저희를 보호하시니 영원이 깃버 노래하며 주의 일흠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를 깃버할지어다
- (1906 구역) 므릇 주를 의지하는자는 깃버할 거시오 희락으로 영원히 소리 지를 거슨 주께서 저희를 덤혀 보호하심이니 주의 일흠을 사랑하는자들도 주를 인하여 깃버 썰 거시로다
- (1925 개일-이원모역) 主를 사랑하고 依賴하는 者를 保護하심이어 깃버하며 永遠히 讚頌하리로다
- (1930 개역) 당신의게 피하는자는 다 깃버하며 당신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즐거워함이며 당신 일흠을 사랑하는자들은 당신을 즐거워할지어다
- (1936 개역) 오직 주의게 피하는자는 다 깃버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깃버 웨치며 주의 일흠을 사랑하는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 (1938 개역) 오직 주의게 피하는자는 다 깃버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깃버 웨치며 주의 일흠을 사랑하는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 (1952 개역한글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오직 主에게 避하는 者는 다 기뻐하며 主의 保護로 因하여 永永히 기뻐 외치며 主의 이름을 사랑하는 者들은 主를 즐거워하리이다
- (1961 개역한글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오직 主에게 避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主의 保護로 因하



여 永永히 기뻐 외치며 主의 이름을 사랑하는 者들은 主를 즐거워하리이다  
(2005 개역개정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 13. 시편 5:12

- (시편촬요) 대개 주께서 올흔 자의게 장춧복을 주시며 여호와여 주께서 장춧 은혜로 저  
를 호위하심은 방패로 호위하심갓습는이다
- (1906 구역) 대개 주께서 의인의게 복을 주시느니 여호와여 은혜로 에우시기를 방패로  
보호함 갓치 하시느이다
- (1925 개일-이원보역) 여호와는 義人の게 福주심이여 恩惠의 防牌로 護衛하시도다
- (1930 개역) 당신은 의인을 복주심이여 여호와여 더를 은혜로 호위하심을 방패로 함 갓  
치 하시리로다
- (1936 개역) 여호와여 주는 의인의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갓치 은혜로 더를 호위하시  
리이다
- (1938 개역) 여호와여 주는 의인의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갓치 은혜로 더를 호위하시  
리이다
- (1952 개역한글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  
위하시리이다
- (1958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여호와여 主는 義人에게 福을 주시고 防牌로 함 같이 恩  
惠로 저를 護衛하시리이다
- (1961 개역한글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  
위하시리이다
- (1964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여호와여 主는 義人에게 福을 주시고 防牌로 함 같이 恩  
惠로 저를 護衛하시리이다
- (2005 개역개정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  
하시리이다